

### 지구촌 전법 이야기



◇행원스님은 일본에 있는 한국교포들에게 올바른 불법을 전해 주겠다고 결심, 66년 첫 해외전법의 길에 나선다. (사진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스님의 행선객들.)

## 교포들 "한국불교 믿고 싶다" 도교서 셋방법당 열고 보니...

### 인연의 길을 따라

잠으로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거침이 없는 역사의 물결, 그 속에 휩쓸리는 사람의 역사는 모래톱처럼 서걱 거렸다. 일제와 해방, 전쟁과 휴전선, 독재와 부패, 부패와 4.19, 혼돈과 정치, 정치와 5.16...

어수선한 것은 속세의 일만도 아니었다. 이승만대통령의 유시로 인해 정화의 깃발은 울린 불교계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혼란의 물결기는 끝이 없었고 끝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끝을 향해 치달리는 하나의 과정으로 묶어 두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시절인연은 한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었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 법계의 진리라면 또 다른 길로 발을 내딛는 것은 인연의 현실이었다.

"비구들이여, 모든이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 물이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행원스님은 전도선언을 외치신 부처님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혼자서 가는 길, 그 외로움을 이제 스님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 됐다. 더이상 일본은 갈 수 없는 나라, 가서는 안될 나라도 아니었다. 반대의 외침도 36년의 뼈저리는 역사는 물결에서 서걱이는 모래톱으로 남아 있어왔다. 이 또한 어수선한 시절인연의 한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행원스님은 일본행을 결심했다. 그것은 해외전법의 첫 걸음이기도 했다. 스님의 일본행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그 씨앗이

##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1>

### 승산 행원스님 ①

됐다. 초중에 있는 동국대의 기숙사 지하실이었다. 이 기숙사는 본래 일본 서본원사의 별관이었다. 종단일을 맡았던 스님은 이 별관을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어이없게도 그 지하실에서 4천여구의 유골이 발견된 것이다.

### 지하실의 4천구 유골

"일본군의 뼈무덤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찌가. 원수의 유골인데 파묻어 버리든지 어디 바닷물에 던져버리지..."

놀라움과 새로이 솟아나는 분개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아니, 그럴 것이 아니야."

스님은 담담히 이끄는 몇 사람과 의논해 그 유해들을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화계사로 옮겨다 놓았다. 그리고 그 일은 금방 소

문이 됐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가족의 생사를 몰서리치며 궁궁해 하듯.

소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본에서 장관급 인사들까지 화계사로 몰려 왔고 가족의 유해를 부동켜안고 울기도 했다. 그 유해 발견은 국교 정상화에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정식으로 스님들과 정치인을 보내 유골을 인수해 갔으며 한국에서도 일본에 흩어진 동포의 유해를 찾아 왔다. 그러니까 양국간의 유해교환이 지울 수 없는 역사의 한 점을 지우듯 이뤄진 것이었다. 물론 이 행사에 행원스님은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 1966년의 일이었다.

이때쯤 행원스님에게 편지가 왔다. 한번도 아니고 수차례 날아든 그 편지는 일본의 국회의원 오오다시 요시오의 것이었다.

"스님, 일본으로 와 주십시오. 일본에서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나다. 이곳의 한국인들은 한국의 절을 원하고 한국의 불교를 원합니다"

당시 일본에도 한국인 스님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본식 스님이 되어 일본식 불교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반쯤 무당이 된 경우도 있었다.

### 불자 없는 궁핍한 생활

행원스님의 일본행은 요오다시 요시오만의 재근이 아니었다. 한국의 정부에서도 일본에 갈 것을 권유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었다. 당시 동경에 필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은 북한이었는데, 절이 북한이었던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몰라도 정작 큰 문제는 그 필화사가 교포들을 세뇌시키고 북으로 이송시키는 거점이란 점이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마침내 행원스님을 일본으로 가게하는 현실적

"스님, 일본으로 와 주십시오. 일본에는 스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절을 원하고 한국의 불교를 원합니다."

이유로 굳어졌다. 일본, 도쿄에 도착했을 때 반겨준 사람은 오오다시 요시오였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거듭거듭해 오던 요시오는 "교려사를 쓰라"는 후한 인심도 내보냈다. 그러나 그 교려사는 이미 몇달전에 불타 버려 행원스님에게는 사할이 없었다.

그러나 희망은 있었다. 행원스님이 일본에서 포교를 한다면 2천만원을 한국불교의 해외포교단 명분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던 정부측의 약속이 있었던 것이다. 행원스님은 그 정부 약속을 믿고 도쿄 신주구에서 집을 고르고 있었다. 1천8백만원이면 사할로 쓰기에 충분한 집을 살 수 있었다. 적당한 집도 골라 두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에 신청한 지원금은 몇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정적이 된 집은 한 일본인이 사가고 말았다.

할 수 없이 다보이주에 셋집을 얻었다. 다보이 7만엔이란 돈은 주어야 했다. 궁핍의 일본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신도도 없이 홀몸으로 시작한 일본 포교에서 넘어야 할 벽은 수 없이 많았다.

<임연태 기자>

### 사카족의 후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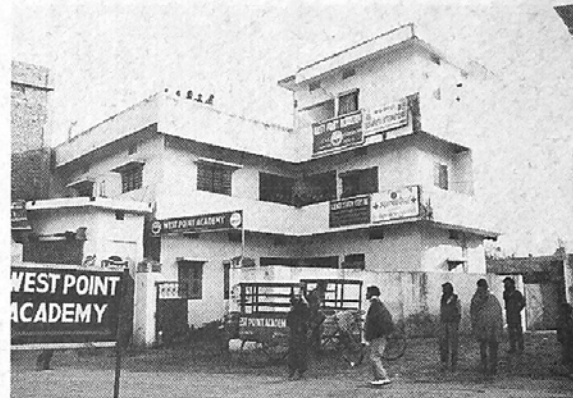
## 사찰 세우고 교육사업도

"동족의 나무그늘은 시원하다." 부처님께서는 사카족의 최후를 재촉하려 가는 코살라 국왕의 길목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법칙은 위대한 성인의 종족마저 멸망시켰다. 이후 불기 2539년을 헤아리는 오늘 사카족은 어디서 무일하고 있을까?

사카족에 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카필라바투를 중심으로 네팔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의 사카방새(사카의 음변화)라는 카스트 전체를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사카방새는 인도 비하르주에 만도 10%를 차지할 만큼 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종족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역사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혈통의 순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네팔의 톰비에는 옛 카필라 왕국의 후손들이 흩날려와 피야별 아래 단돈 700원(45Rf)의 일당을 벌기 위해 오늘도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최첨단 문명을 동원한 톰비 나개발계획의 화려한 뒤에는 타국인들의 부처님 성지건설 계획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 노력하는 후손들의 얼굴이 역사의 아이러니로 숨어 있었다는 것이다.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산스님에 따르면 네팔의 사카족들에게 특별한 신분적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교수, 의사 등의 지식인도 있지만 다수가



◇자신의 뿌리를 일깨워 사카족들은 조상에 대한 공지가 높다. 이들은 가난한 이를 위해 의료봉사를 하거나(사진 위) 학교를 설립, 교육사업에 열정을 쏟기도 한다.(사진 아래)

## 최근 '부처님 후손' 인식 불교계의 활발 네팔·인도에 거주...대부분 중하층 생활

중하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카족스님인 마이트리 스님은 스리랑카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다. 스님은 네팔 현지에서 국제적 문화교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현재는 톰비에서 가난하고 병든 네팔인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인도에 거주하는 사카족들도 공식적으로는 카스트제도가 폐지되어 직업선택에 제한은 없다. 그러나 관습적으로는 신분이 강한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사카방새는 중하위층에 머물고 있다. 인도 전체를 통틀어 놓고 보면 사카방새들 중에는 불교를 신봉하는 이도, 부처님이 조상이었음을 아는 이도 높은 비율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최근 동북부의 파트나와 북부의 상카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카족과 직접 교류를 가

지게 된 법륜스님(정토법당)에 따르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불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파트나에서는 상업, 부동산업 등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춘 사카가 증가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특히 역사교육을 통해 이들은 10여년 전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다. 부처님이 조상임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들 사이에는 불교로 개종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선조에 대한 강한 공지를 느끼면서 '나무뿌리'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가 되었다. 이들은 또한 아쇼카 보드 비하르라는 불교단체를 조직하여 사찰을 건립, 중이며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사찰이 완공되면 법륜스님을 통하여 한국불교를 모시기에 적극적이고 있다고 한다.

상카시 지역은 사카족들이 이왕의 달리 대대로 불교를 신봉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교육수준이 높아 대학출신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불자회를 조직 현재 회원이 천여명에 달한다. 스리랑카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들은 강한 신앙적 열정으로 동종이었고 앞으로는 교육, 포교사업도 활발 계획이다. 이 모임의 회장은 팔리어를 배워 힌두교의 일부로서가 아닌 불교를 알고 가르치려는 야심을 품고 있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후손들의 가슴마다에 메리치고 나아가 네팔, 인도 전역에 불교문화가 다시 찬란히 꽃피는 날 상카시, 파트나 사카족들의 헌신적 노력은 결실을 거둘 것이라 기대가 크다. <백미영 기자>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하십시오.

문의 (02)737-8881 (공고국) 팩스 (02)737-0697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 645-6224 대구: 952-8711

**연꽃방**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전화 738-3933 (지택) 934-1748

**운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대) / 팩스: 562-3205 문의시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삼B/D 2층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였습니다.

**신심 깊은 보살님 두 분만 찾습니다**

조용한 절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갈 신심 깊은 보살님 두 분에게 무료로 침식제공하오니 뜻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 사실곳 경기도 양평군 불광산 정토원 ■ 연락처 서울 238-3285, 233-2500

**한남상사**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1동 612-5 전화번호 02)795-4083 팩스 02)792-9659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공,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 허성호(공방)

전화번호 주 아: 4242-511, 4622-511, 4252-025 FAX 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유대폰: 011-267-2510 주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동) 불교종합복지회관 옆

**탁자, 달집, 범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력

- 성남(법주사): 대웅전 문짝 단립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법당·경상
- 화성(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문짝
- 서울(법주사): 범상 수미단 문짝
- 서울(법주사): 대웅전 문짝
- 화성(법주사): 대웅전 문짝

대전(진승)공예사

연도폰 011-282-4609 지 택 02-248-4609 공 정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চিত্ৰশিল্পৰ গুৰুত্বপূৰ্ণ আৱিষ্কাৰ**

Circle-B® 최전셋솔

최우려한 칫솔질하세오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 온라인: 불교연합몰지점 096-01-239051 (서울상사) ■ 전화: (02)556-3076-7 ■ 팩스: (02)556-3078

**청승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윤 조각실 (불교미술원)**

- 부처님 조성
- 청동불 조성
- 대불조성
- 천불전
-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 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